전남도,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

국·도유지 교환·기본계획 마무리
국비 1475억 투입… 2031년 개원
모노레일·전망대·전시온실 등 조성
한반도 난·아열대화 대응 전초기지

전남도의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이자 민선 8기 정책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이 국·도유지 교환, 기본계획 등이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난대수목원은 완도 군외면 대문리 산109-1일원(도립 완도수목원) 381ha에 국비 1475억원을 들여 조성된다.

지난 8월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앞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후 착공해 2031년 개원될 예정이다.

지난 1991년 개원해 운영 중인 도립 완도수목원은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나 전시 콘텐츠가 부족하고, 관람 동선이 불편해 연간 관람객이 7만여 명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은 난대숲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목원 조성을 목표로 5대 랜드마크인 '하늘길 모노레일, 레이크가든, 다도해 전망대, 전시온실, 트리탑데크로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규 콘텐츠로 산악 지형을 최대한 살려 기존 산림박물관에서 산 정상부까지 '모노레일' 3㎞ 구간을 구상, 누구나 원시림에 가까운 난대림을 쉽게 감상토록 꾸미고, 제1 전망대, 제2 전망대를 중간에 설치해 쉼과 감상을 함께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저수지 주변에는 '레이크가든'을 조성해 남도의 전통정원 등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원을 꾸미고, 세미나실, 카페 등 쉼터 공간도 함께 갖추게 된다.

기존 '온실'은 킬러 콘텐츠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식물종을 전시하고 미래 기후에 대한 방향성 제시 등을 위한 리뉴얼을 추진한다.

난대림 상단부 사이를 걸으며 천혜의 수림대와 남해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트리탑데크로드' 설치도 계획 중이다.

전남도와 산림청, 완도군은 이같은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한 수차례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오는 9월 말 완도군민 등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40만 명의 방문객이 전남과 완도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8000억원, 고용유발 효과 1만7000 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전국 난대림의 35%(3446ha)가 분포해 난대림 육성의 최적 조건을 갖춰 한반도 난·아열대 보전 전초기지 역할이 기대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종 개발 및 보전 활용으로 생물다양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난·아열대 생물자원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립난대수목원은 한반도 난·아열대화에 대응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원시림에 가까운 붉가시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군락 등 전국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난대림을 보전하고, 다양한 생태관광 콘텐츠를 도입해 남해안의 새 관광명소가 되도록 산림청과 협력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 내년 에너지 분야 국비 629억 확보

인프라 확충·기술개발·인력양성
"글로벌 에너지 수도 도약 발판"

전남도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에너지 분야 국비 629억원을 확보, 분산에너지 등 전남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확보된 국비는 에너지 분야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및 재생에너지산업 지원, 맞춤형 에너지복지, 에너지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도가 글로벌 에너지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에너지 분야 인프라 확충'의 경우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19억원이 반영돼 가상환경 기반의 연구개발(R&D) 플랫폼을 구축,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10억5000만원을 확보해 해상풍력단지 입지 검토 및 타당성조사를 통한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활용된다.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49억원,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58억원도 포함됐다.

'기술개발 및 재생에너지산업 지원사업' 분야에선 70kV급 신송전 전력기자재 평가기술개발 실증용역 2억원을 확보, 분산에너지에 특화된 2000억원 규모의 예타 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60억원을 투입해 시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추진한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6억원을 통해 에너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분산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에너지 복지사업' 분야는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57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5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5억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5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에너지 인력양성' 분야는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10억원이 반영돼 지역 에너지기술 전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한 전문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100억원도 확보해 글로벌 에너지 인재 양성을 지원하며 특히 분산에너지 기술 관련 교육 및 연구개발을 집중적 추진하게 됐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출 중심의 복합에너지 활용 퓨처팜 MG 플랫폼(총사업비 250억원), 화순군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총사업비 5643억원) 등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동환 기자

제24회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 방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제24회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 현장'을 찾아 상사화 꽃길걷기 체험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53곳 선정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

광주시는 광주청년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2024년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53곳을 선정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은 광주시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 대우를 보장하는 등 노사 상생을 실천하는 사업장이다.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알바친화사업장 인증스티커 부착, 상하수도요금 약 100만원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장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83곳을 친화사업장으로 지정, 지원했다.

한편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돼 청소년 알바지킴이 상담센터 운영,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1588-6546),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퇴직금 지원 등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가을 통합축제 브랜드 'G-페스타 광주' 첫 선

25일부터 한달간 광주 전역서
17개 지역축제·행사·마이스 집적

광주 지역축제와 행사, 마이스를 통합 브랜딩한 'G-페스타 광주'가 올 가을 첫 선을 보인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10월26일까지 한 달 간 17개의 축제·행사·마이스를 집적한 'G-페스타 광주'를 연다.

G-페스타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는 25일부터 10월13일까지 19일간 11개의 행사가 열린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9월7일~12월1일)는 30개국 72명의 작가들이 판소리를 매개로 소리와 공간이 함께하는 오페라적인 전시를 선보인다. 비엔날레전시관·양림동 일대에서 본전시가 열리고, 31개 국가·문화기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은 역대 최대 규모로 광주 전역에서 개최된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광주 최대 규모의 맥주축제인 '비어페스트 광주'(9월25~29일)와 세계 30개국이 참여하는 문화콘텐츠 종합 전시회 '광주에이스페어'(9월26~29일)가 열려 G-페스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또 유명 뮤지션의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음악축제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9월27일)과 대한민국 최초의 국내외 브랜드 전시, 토크, 뮤직쇼 등을 통해 서로의 취향과 문화를 자유롭게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렛츠플로피2.0'(9월 28~29일)이 함께 열려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예술축제인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금남로, 광주비엔날레, 시청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잇따라 연다.

문학을 통해 아시아를 이해하고,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제5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9월 27~29일)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다. 또 예술과 기술이 공존하는 'ACT 페스티벌 2004'(9월 27~29일), '아시아문화주간'(10월 3~13일) 등 아시아인의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 잇따라 마련된다.

금남로·충장로 일원에서는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10월 2~6일)가 열린다. '충장발光'을 주제로 추억감성콘서트, 열정의 댄스나이트, 충장 파이어아트 퍼레이드, 로맨스 파이어 등 대규모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올해 3회째인 '광주 버스킹 월드컵'(10월 1~6일)은 국제음악산업 학술회의와 뮤지션 쇼케이스 공연과 함께 전세계 버스킹 뮤지션 32개팀이 길거리 공연과 경연을 펼쳐 광주 전역을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G-페스타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는 10월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동안 맛을 주제로 6개의 축제가 열린다. '제31회 광주김치축제'는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청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호남 최대 규모의 식품산업 전시회인 '광주식품대전'(10월17~20일)과 다양한 주류 시음 및 구매, 주류소품 전시, 체험행사 등 직접 마셔보고 즐기는 '광주주류관광페스타'(10월18~20일)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도심속 은빛 억새의 절경과 운치있는 노을을 느낄 수 있는 생태환경축제인 '광주서창억새축제'(10월17~20일)가 영산강변 일원에서 열려 김치축제와 김대중컨벤션센터 마이스 방문객이 자연 힐링과 도심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노병하 기자**